“8월 재확산 내수 회복 찬물… 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추진
내수활력 위해 전방위 노력
청년 취업시름 마음 무거워
고용시장 충격 극복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일자리 상황도 악화한 가운데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같은 소비 진작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도 예고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 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9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선세를 보이던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월 실업자 수는 100만명으로 9월 기준 2018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 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해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이라며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돼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인도 진출 기업 유의하세요” 공정위, 印경쟁법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발간된 첫 자료로, 경쟁법의 주요 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구 13억2000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인도에 연간 10억달러를 투자(2018년 기준)하고 있다.

책자를 보면, 인도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방사청

신속획득2차사업 입찰 공고

방위사업청은 4차산업력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12개 과제의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2일간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12개 과제 목록은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 ▲다목적 무인차량 ▲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열영상 도트복합조준장비 ▲웨어러블 수중탐색장비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 ▲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체공 드론 ▲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지능형 항재밍 센서 등이다.

신속시범획득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7월에는 4개 사업이 1차 사업으로 선정됐다. 1차 사업 과제는 오는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에 들러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된 2차 사업 12개 과제도 연내 계약이 추진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K-방역·바이오헬스 세계로 세계 첫 온라인 전시회 개막

산업부, 국내외 기업 448곳 참가
제약·의료기기 등 전분야 총망라

‘K-방역’을 앞세운 국제 온라인 전시회인 ‘바이오헬스웰드와이드온라인(Bio Health Worldwide Online 2020, 이하 바이오헬스전시회)’가 국내외 기업 448개사(국내 436개, 해외 12개)가 참가한 가운데 19일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인포마마켓(informa markets)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를 위해 준비됐다. 해외에서 호평받는 K-방역 제품과 솔루션은 물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바이오헬스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를 망라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인포마마켓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연간 550개의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 지부에 4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계 1위의 글로벌 전시회 주최사다.

산업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전시회를 통해 코트라가 보유한 해외 129개 무역관 마케팅 노하우와 인포마마켓의 전시회 운영 능력을 결합해 국제 온라인 전시회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CES(전자·IT, 미국), MWC(IT, 스페인), HNNOVER MESSE(기계, 독일)와 같은 글로벌 오프라인 전시회는 없으나, 코로나19로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진 만큼 온라인 전시회 만큼은 글로벌 위상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참가 제조기업은 전시회 폐막인 이달 30일까지 해외 바이어 650개사와 2주 동안 집중 화상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퍼런스, 투자유치 IR, 웨비나 등 부대 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K-방역관을 통해 최근 주목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과 관련 제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K-방역관, 바이오·제약관, 의료기기관, 헬스케어서비스관 등 4개로 구성된 가상 전시관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언제든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K-방역관에는 음압기 및 열화상 출입통제장비는 물론 진단·검사 장비 및 검체채취 도구 및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제품들이 총 망라됐다. 특히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진단시약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품목들이 다수 전시됐다. 19일 시작된 온라인 데모데이에는 해외 투자가를 기다리는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5개사가 참가했다. /한용수 기자 hys@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 및 변호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강기정, ‘옥중서신’ 변호사·검사 고발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는 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한 변호사와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에서 A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이와 함께 옥중서신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한 내용도 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봉현의 자필 글에 따르면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더해 전·현직 검사들에 의한 총체적 검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사건의 진위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이 그동안 밝힌 법정 진술에 대해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직접 서술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간접 진술과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진술을 수사하고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또 “A 변호사와 B 검사가 나눈 이야기 사실 여부는 잘 모른다”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눈 그 결과, 실질적 피해 당사자는 저라고 생각한다. 진상을 밝혀서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전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강 전 수석의 GPS 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 “빨리 (사실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농식품부

오늘 ‘생물안전 학술대회’ 개최

민·관 생물안전 전문가들이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2020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컨퍼런스)’를 20일~22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공동 주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생물안전’, ‘국가관리 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